

‘에너지밸리’ 나주, 역대 최대 규모 잡페스티벌 연다

26일 한국에너지공단 일원서...맞춤형 일자리 매칭 2024 나주글로벌에너지포럼 연계 70여 기업 참여

열 번째를 맞은 나주시 잡(JOB)페스티벌이 2024 나주글로벌에너지포럼과 함께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로 개최된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나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KENTECH) 일원에서 '제10회 잡페스티벌'을 연다. 잡페스티벌은 한국전력 그룹사를 포함, 에너지 분야 산·학·연 기관과 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에너지밸리 중심지로 도약한 나주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일자리 행사다.

참가기업 현장 면접, 1대1 취업컨설팅, 채용설명회, 일자리 매칭 등을 진행하며 인력이 필요한 기업, 취업을 목표로 역량을 다져온 구직자를 연결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분야 석학들을 초청해 열리는 2024 나주글로벌에너지포럼과 연계 개최해 역대 최대 규모 기업들이 참가한다. 올해 현장에 참여하는 주요 기업은 ㈜남원터보원, ㈜더조은에너지, ㈜동남, ㈜디투엔지니어링, 남경에스텍, 지엠케이

이 등을 비롯한 온라인 참가기업 45곳을 포함해 70여 업체에 달한다. 이들 기업은 현장, 사무, 기술, 설계, 노무,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채용할 계획으로, 행사 참여가 어려운 기업들은 온라인 채용관에서 온·오프라인 면접을 통해 숨은 인재 발굴에 나선다. 또한 나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동신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LIN C30사업단, 나주·광주고용센터 등 일자리 관계 기관에서도 다양한 연령대 구직자들을 위한 맞춤형 고용정책, 구

직정보 등을 알차게 제공한다. 광주·전남공동(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 한전 KPS, 한전KDN, 한국전력거래소는 현장 멘토링을 통한 공공기관 취업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으로 기대를 모은다. 구직자와 방문객을 반기는 이벤트도 다양하다. 행사장 일원에선 이력서 사진 촬영, 면접 이미지 메이킹, 취업 타로, 직업적성 컨설팅(MBTI) 등의 다양한 부스를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 나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 발굴 기회와 더불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첫 개최하는 나주글로벌에너지포럼과 연계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나주시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정훈환 기자



신안군 자연면 이장단이 최근 국립 목포대 의대유치를 위한 '희망 피날레 걷기'에 참여해 의대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의료격차 해소!”...목포대 의대 조성 캠페인 열기 ‘후끈’

목포시, 내달 말까지 ‘희망 피날레 걷기’ 추진...의대 유치 분위기 조성

목포시가 추진 중인 국립 목포대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전남권 '희망 피날레 걷기'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희망 피날레 걷기'는 섬 거주민, 노인, 농민, 어민 등 도민들을 찾아가 인터뷰하며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 국립 목포대 의대 신설

을 지원하는 홍보 프로젝트다. 목포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10월 말까지 무안, 신안, 진도 등 전남 서부권과 담양, 나주 등 중부권을 포함한 전남 14개 시·군을 방문해 국립 목포대의대 유치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태는 첫 번째 방문지는 무안군과 신안군

이다. 지난 6일에 만난 무안군 현경면 해운4리 부녀회장은 "시골 지역에 고령화가 많이 진행됐는데 작은 병원들만 있어 아포면 타지역으로 가게 된다"고 지역 환자 유출을 걱정했다. 지난 12일 만난 신안군 자연면 이장협 의회장은 "섬 지역 환자들은 타지역이송 중 사망하는 사례가 많다"며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어르신들

이 작은 병도 치료받지 못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날 신안군 압해읍 가물리 이장은 "국립 목포대 의과대학 신설로 다른 지역과의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바란다"고 소망했다. 박인지 목포시 큰목포기획단장은 "국립 목포대 의대 신설에 대한 도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

다"며 "앞으로도 희망 피날레 걷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흥률 목포시장은 "우리의 간절한 노력으로 대통령의 전남권 국립 의대 추진 발언을 이끌어 냈다"며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국립의대 정부 추천 용역에서 반드시 전국 최고의 의료 취약지인 국립 목포대가 선정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전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10월 말 선정된 대학을 정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목포=정해선 기자

무안 농어촌버스 요금 동결 좌석버스 내달부터 300원 인상

무안군은 22일 "전남도 버스 운임·요금 조정 결과에 따라 10월 1일부터 좌석버스 요금을 인상하지만, 단일요금제를 시행 중인 농어촌버스 요금은 동결한다"고 밝혔다. 인건비·유류비 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을 반영한 전남도 버스 운임·요금 조정 결과 ▲농어촌버스 요금은 일반인 1천700원(현행 1천500원), 중고생 1천350원(현행 1천200원), 초등생 850원(현행 750원) ▲좌석버스는 2천400원(현행 2천100원)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무안군은 2021년부터 농어촌버스 1천원 단일요금제를 시행 중으로 요금 인상 분은 군에서 보조해 승객들은 농어촌버스 이용 시 1천원 요금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시행 중인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도 변함없이 교통카드 사용 시 100원 요금이 적용된다. /무안=김상호 기자



“해남 우수영관광지로 명량역사체험 오세요”

내달 13일까지 민속공연 등 운영

해남군은 22일 "10월 13일까지 매주 주말·공휴일 우수영관광지 성문광장 앞에서 명량역사체험마당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매년 우수영관광지에서 열리는 명량역사체험마당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명량대첩의 대승을 만들어낸 우수영민초들의 정신이 깃든 민속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사)해남우수영강강술래부녀농요진흥회 주최로,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문화유산인 우수영 강강술래(사신)와 전남 무형문화재 제22호 우수영부녀농요 등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저잣거리를 재현한 체험마당이 운영돼 어린이와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은 2024 명량대첩축제가 개최된다. 축제는 차별화된 융복합 미디어 해전을 재현하고, 회오리 불꽃쇼, 출정퍼레이드, 트롯&EDM, 이순신 밭살 등 지역특색을 살린 프로그램과 역사캐릭터, 놀이 등 다양한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해남 우수영관광지는 이순신 장군이 정유재란 당시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선을 물리친 명량해전의 승전지로서 해남군과 진도군 사이 약 11km해협의 울돌목에 위치해 있다. /해남=박필용 기자



강진군이 지난 추석 명절에 출몰하는 어르신들에게 제공한 간식세트. <강진군 제공>

강진군, 추석 노인돌봄 공백 최소화 ‘호응’

어르신 지킴이단 운영...94명 발굴 연휴 돌봄

강진군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독거노인 보호활동을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22일 강진군에 따르면 현재 군의 65세 고령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38%로 1만2천637명에 달해 전년 22개 시·군 중 6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더불어 가족 돌봄 약화, 어르신 사회적 관계망 약화, 추석 명절 기간 자녀·친족 등 왕래 감소 등으로 인해 연휴 기간 어르신 돌봄이 취약해지기 쉽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진군은 추석 명절 독거노인 보호 특별대책을 추진했다. 추석 명절 한시 특별 운영하는 '어르신 지킴이단'은 읍·면 복지업무 담당자,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등 일선에서 돌봄 업무를 추진 중인 인력 자원을 활용한 독거노인 보호 시스템이다. '어르신 지킴이단' 운영을 통해 명절 기간 자녀 미방문, 기타 요보호 대상 등 실질적으로 홀로 있는 어르신 94명을 발굴했다. 여기에 돌봄 서비스를 연계할 지킴

이단 68명을 투입, 연휴 기간 수시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평소 노인맞춤돌봄센터의 생활관리사 방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2천219명의 독거노인과 응급안전시스템 등을 통해 모니터링 되는 2천442명의 독거노인의 경우, 해당 센터와 시스템이 휴무에 들어갈 경우 노인보호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연휴 중 16일과 18일 이틀간 어르신 안부전화 서비스 및 응급안전시스템 당직 근무자 배치 및 특별근무 등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명절 기간 홀로 있는 어르신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어르신 지킴이단 등 돌봄 서비스로 인해 홀로 명절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이웃과 함께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늘 가까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영광승마장 승마교관, 제14회 어린말 승마대회서 기량 뽐내

교수형·유설희 교관, '장애물·국산마 품평회' 부문 입상

영광군은 22일 "영광군 대표로 제14회 어린말 승마대회에 참가한 영광승마장 승마교관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사진) 최근 경북 구미시 승마장에서 개최된 '제14회 어린말 승마대회'에서 영광승마장은 장애물 D class(100cm) 종목에서 교수형 교관이 4위, 국산마 품평회 퇴역마 부문에서 유설희 교관이 5위를 차지하며 11월 개최되는 '어린말 대회 챔피언십' 출전 자격을 얻게 됐다. 어린말 승마대회는 2018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국산 승용 우수마 조기 발굴 및 효과적인 선발을 도모하고 승마대회를 통한 국산 승용마의 유통, 소비 촉진을 장려하기 위해 한국마사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회다. 이번 대회는 한국마사회 말 등록원에 등록된 국산 4~7세의 승용마를 대상으로 마장마술 3종목과 장애물 6종목,

국에 영광승마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영광승마장에 방문하면 우수한 교관들에게 승마를 배워 볼 수 있으니 군민들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영암, 2025년 생활임금 2.2%인상

시급 1만731원 의결...정부 고시 임금비 6.98% ↑

영암군은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5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731원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올해 생활임금 1만500원 대비 201원(2.2%) 인상한 것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 1만300원보다 701원(6.98%) 높은 수준이다.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만2천799원이다. 영암군생활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을, 전남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영암군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 확정된 영암군 생활임금은 내년 1년

간 영암군 소속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와 영암군 출자·출연 기관 근로자 250여명에게 적용된다.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도·군비 지원사업에 일시 채용됐거나 생활임금 인상을 받는 이는 제외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급되는 급여로, 군은 2022년 4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암=나동호 기자